

다니엘서 - 번호 20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수놓은 예언의 태피스트리를 펼쳐 보이다

Jeff Pippenger
2023-12-15

화이트 자매는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예언적 교훈들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묘사되어 있음을 자주 지적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는 나라들의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단지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한다. 그 후로 우리 세계가 다시는 보지 못한 권세와 장엄함을 지녔던 바벨론—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견고하고 영속적으로 보였던 그 권세와 장엄함도—얼마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렸다. 야고보서 1:10. 메대-페르시아 왕국과 그리스와 로마의 왕국들도 그와 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은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멸한다. 오직 그의 목적과 결부되어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영속할 수 있다. 우리 세계가 아는 확고한 것은 그의 원칙들뿐이다." 선지자와 왕들, 548.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왕국들의 '흥망성쇠'는 예언 연구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바벨론의 몰락은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의 바벨이 몰락한 사건으로 예표된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은 다시 무너진다. 교황권이 538년에 권세를 잡아 일어났다가 1798년에 몰락한 역사 역시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을 예표한다. 왜냐하면 예언에서 교황권은 영적 바벨론이기 때문이다. 교황권은 1798년에 몰락했으며,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최후의 몰락을 개요적으로 제시한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서, 그곳에서 북방 왕으로 등장하는 교황권은 도와주는 자 없이 그 끝을 맞는다. 이는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일어난다. 왜냐하면 11장 45절과 12장 1절은 동일한 역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있는 영화로운 거룩한 산에 그의 궁막을 세우리니, 그러나 그는 그의 끝에 이르고 그를 도울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그때까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없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니,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러하리라. 다니엘 11:45, 12:1.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두 번 무너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니므롯과 벨사살로 대표되는 문자적 바벨론은 두 번 무너졌고, 영적 바벨론은 1798년에 무너졌으며, 사람들에게 주어질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다시 무너진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만국으로 하여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4:8.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의 몰락이 반복되는 것은, 성경 안의 단어와 구절의 반복을 둘째 천사와 한밤중 외침의 결합된 기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데 예언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또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토대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밝힌 원칙을 지지한다. 이는 바벨론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예언 연구자가 바벨론의 모든 몰락을 '줄 위에 줄'로 모아 바벨론의 최종적 몰락에 대한 올바른 예언적 기별을 확립해야 한다는 개념을 보여 준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이 두 번 무너진다는 것은, 진리가 두 증인의 증언으로 확립된다는 예언의 원칙에 근거한다. 그 기별 속에서 바벨론의 몰락이 이중으로 제시되는 것은, 성경에서 늦은 비로 알려진 예언적 방법론을 나타낸다. 그 거룩한 방법론, 곧 늦은 비는, 여러 예언의 줄기들을 "line upon line"으로 함께 모아 적용하는 것이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방법론을 사용할 때, 그 방법론은 늦은 비의 "기별"을 정립한다. 그 거룩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정립된 늦은 비의 기별은, 이후 둘째 천사와 한밤중 외침의 결합된 예언적 역사 속에서 선포된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운동의 역사에서 그러했으며, 오늘날 셋째 천사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그러하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흥기와 시작을, 5장에서는 벨사살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몰락과 종결을 다루는 역사적 선을 보여 준다. 이들은 함께 하나의 예언적 선을 형성한다. 그 두 장에서 나온 그 예언적 선을 다니엘서 1-3장 위에 겹쳐 놓아 늦은 비 메시지를 확립한다.

두 장은 느부갓네살의 몰락과 회복, 그리고 벨사살의 몰락과 멸망을 제시하며, 따라서 그 선의 처음과 끝에서 바벨론의 몰락을 제시한다. 그 두 장이 만들어 낸 예언의 선은 바벨론이 몰락하고, 회복되었다가, 다시 몰락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 두 장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함을 드러낸다. 두 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를 대표하며, 그 역사 속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한밤중의 외침이 두 번 선포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고찰하기에 앞서, 늦은 비라고 하는 거룩한 방법론을 먼저 규명하고, 그 방법론을 적용하여 늦은 비의 메시지를 파악할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는 윌리엄 밀러의 예언 해석 규칙이 나타내는 방법론이었다. 그 규칙들은 사람들이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기별은 그 시대를 위한 늦은 비의 기별이었다.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는 '예언적 열쇠들'로 표현되는 방법론이다. 그 규칙들은 윌리엄 밀러의 규칙들과 함께 사용되어 우리 현재의 역사에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식별하도록 하며, 지금 그 규칙들에 의해 확립되고 있는 기별은 마지막 날들의 늦은 비의 기별이다. 밀러의 규칙들은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에서 이른 비를 대표하고, 그 규칙들이 '예언적 열쇠들'과 결합될 때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에서 늦은 비를 대표한다.

늦은 비는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경험을 이끌어내는 메시지를 먼저 구하지 않고 늦은 비의 경험만을 구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이들이 있다. 기독교의 오순절 교회들은 그러한 미혹의 명백한 사례다. 그와 같은 종류의 그릇된 방향성은 늦은 비의 메시지를 구하면서도, 늦은 비의 메시지를 식별하고 정립하는 방법론을 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 올바른 방법론이 없이는 올바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없다. 올바른 메시지가 없이는 올바른 경험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적 사실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은 단 하나일 수 있고, 잘못된 방법은 여럿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잘못된 방법,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장 자주 선택되는 방법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교인들의 이 잘못 인식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조직한다. 그 잘못된 필요는, 훈련되지 않은 양 떼의 이해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성경 이해의 영적 전문가로 규정되는 지도자 체계를 세우는 거짓된 일을 만들어 낸다. 성경은 교회의 구조를 위한 아주 조직적인 체계를 제시하며, 그 안에는 장로와 선지자와 교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별하고, 나아가 누가 이단이며 누가 아닌지를 규정하도록 임명된 지도자 체계를 만들어 내는 교회 조직의 타락을 결코 승인하지 않는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보이기 위해 힘쓰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디모데후서 2:15.

교회 지도자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며, 거짓 교리와 그것을 선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임을 '보이도록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바른 길로 제시한 방법론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늦은 비의 맥락에서 제시하므로,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흑독하고 크며 강한 자신의 칼로 도망하는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노래하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아!"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키며, 때 순간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리라. 분노는 내게 있지 않다. 누가 싸움에서 나를 대적하여 가시와 찔레를 내세우겠느냐? 내가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며 함께 불사르리라. 아니면 그가 내 힘을 붙잡아 나와 화친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나와 화친하게 되리라. 그가 야곱의 자손들이 뿌리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꽃피고 봉오리가 트며, 그 열매로 온 지면을 채우리라. 그를 치신 것이, 그를 친 자들을 치신 것과 같았더냐? 혹은 그가,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살육처럼 죽임을 당하였더냐? 분량에 따라, 그것이 뺏어 나올 때 너는 그것과 다투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자신의 거친 바람을 멈추신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며, 그의 죄를 없애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돌처럼 만들 때, 성숲과 우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견고한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거처는 버려져 광야처럼 남겨질 것이다. 거기에서 송아지가 먹고, 거기 누우며, 그 가지들을 먹어 치우리라. 그 가지들이 말라버리면 꺾여 나가고,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르리니, 이는 그 백성이 깨달음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빚으신 이가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강의 물줄기에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타락하실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하나 모아질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 지경에 있던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사야 27:1-13.

이전 기사들에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 들어 올려지는 '기치'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었다. 이사야 27장의 마지막 절은 "큰 나팔이 불려지고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려 하던 자들이 올 것이라"라고 하면서 그 기치의 사역을 언급한다. 앗수르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을 상징하며, 그 절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의 기별을 듣는 자들은 예언적으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 있는 것으로 표상되는 십사만 사천과 함께 와서 예배한다.

그 구절은 "그 날에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다. "그 날"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날로, 장 전체의 배경을 이룬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은 주일법 때, 두로의 음녀가 기억될 때에 외친다.

또 내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희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또 그녀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4, 5.

이사야서 27장은 장의 끝부분에서 언급되는 바로 그 날을 이렇게 가리키며 시작한다. "그 날에 주께서 그의 준엄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일요일 법령에서 하나님의 집행적이고 보응적인 심판이 용(유엔), 짐승(교황권), 거짓 선지자(미국)의 세력들 위에 내려지기 시작한다. 일요일 법령 때 거짓 선지자는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서 전복되고, 국가적 배교는 국가적 파멸을 초래한다. 일요일 법령은 사탄인 용(그의 지상 왕국이 용으로 표상된다), 짐승, 거짓 선지자 위에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는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점진적인 징벌이다. 이사야 27장의 시작과 끝은 일요일 법령이며, 그 장은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그 이후에 뒤따르는 역사와 직접 연결된 구체적인 쟁점들을 제시한다.

우리는 27장을 살펴보고 있다. 그 장이 28장과 29장을 위한 예언적 배경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 장들에서 우리는 '늦은 비'를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정의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다니엘서 1~3장 위에 4~5장을 겹쳐 놓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사야 27장이 용의 왕국에 대한 점진적 징벌의 시작을 지목한 뒤, 그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녀에게 노래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기록한다. 누구에게 노래하라는가?

누구에게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노래의 제목에 있다. 그들은 "주께서 지키시는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을 노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도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며, 그것은 이사야서 5장에서 처음 언급된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우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울타리로 두르고, 그 돌들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그 안에 또 포도즙틀을 만들었도다. 그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으나,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하지 않은 것 가운데, 더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내가 좋은 포도를

바라왔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 울타리를 제거하여 먹히게 하고, 그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치지도 아니하고 김매지도 아니하여, 찔레와 가시가 돋을 것이며, 구름에게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심은 나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더니 보라 압제가 있고, 의를 바라셨더니 보라 부르짖음이 있다. 이사야 5:1-5.

일요일 법 위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 노래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포도원의 노래는 이전의 언약 백성이 지나쳐 버려지는 것을 드러내는 노래이며, 동시에 베드로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에 들어가시는 일을 밝히는 노래이다. 그것은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그 시기에 오고 그 기간에 오직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사역을 식별하게 한다. 우리가 이 노래가 언약 백성이 지나쳐 버려지는 것에 관한 것임을 아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지나쳐 버려지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고대 이스라엘에게 부르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심고, 그 둘레에 울타리를 두르며, 그 안에 포도즙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농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소작농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소작농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멸하고, 제때에 그 열매를 바칠 다른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돌에 부딪치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그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마태복음 21:33-45.

예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의 논리와 힘에 크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께서 따지고 드는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옳은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악한 자들을 처참히 멸하고, 제때에 그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그의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버림받은 돌에 대해 노래하시며 그 노래에 또 한 절을 곧바로 덧붙이셨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를 가루가 되도록 부수리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연으로 그들의 대답을 종합하셨다. “그를 가루로 만든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 27장을 반향하여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조각난 백악석처럼 만들 것이니, 숲들과 형상들은 서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돌 다 요시야가 행한 부흥의 사역을 가리키며, 그는 “일곱 번”을 다시 발견하는 마지막 날의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짓부수는 걸림돌이다.

이사야 27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요일법의 날에 한때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주님의 포도원, 붉은 포도주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글들은 첫째와 둘째 기별 없이 셋째 기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주 지적해 왔다. 일요일법은 셋째 기별이며, 일요일법의 날은 첫째와 둘째 기별의 역사를 포함한다. 이사야 27장에서는 일요일법이 다니엘 1장으로 대표되는 기간을 가리키고, 이어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의 기간을 다시 가리킨다. 예언적으로, 27장에 나오는 일요일법의 날은 첫째 기별이 권능을 받은 2001년 9월 11일의 역사에서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로마의 음녀가 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시점을 앞두고 구속받은 자들이 선포해야 할 노래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있어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았으며, 또 수금을 타는 자들이 그들의 수금을 타는 소리도 들리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며,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1-5.